



“21세기 인쇄” 새로운 모델 제시

일본인쇄기자재전시회(JGAS 2005)가 지난 10월4일부터 8일까지 동경 빅사이트전시장에서 20여개국 300여개 사가 자사의 최신 기종들을 출품한 가운데 화려하게 개최됐다.

일본기자재단체험의회(회장 요시하루 고모리)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21세기의 인쇄가 변한다”라는 테마로 열려 미래 인쇄문화를 열어 갈 수 있는 기자재

들이 대거 출품됐다.

JGAS는 4년에 한번 개최되는 국제전시회로 IGAS를 보완하는 아시아전으로 200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에 어울리는 강연회와 세미나도 다양하게 개최됐다.

‘인도·중국의 인쇄 산업 현황과 향후의 전망’, ‘당신 회사의 재해에 대한 준비는?’이라는 특별강연과 ‘도쿄의 인쇄4단

체 대표가 최신의 화제를 말한다’ ‘인쇄의 디지털화를 지배하는 표준·규격화의 최신 동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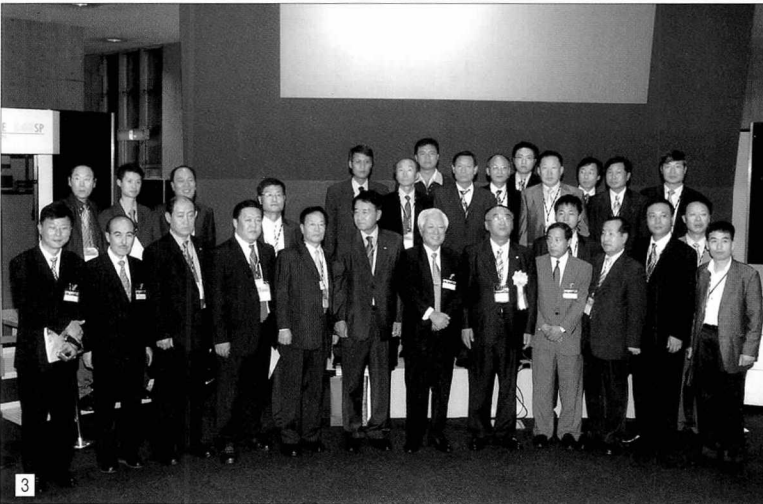
일본에서 개최됨을 상징하듯 고모리가 대형 부스를 마련, 양면기와 윤전기 등을 전시해 주목을 끌었고 미쓰비시와 아끼야마, 다이니폰스크린, 후지필름 등도 자사의 신제품들을 대거 출시해 미래 인쇄를 가늠케 했다.



1



2



3



4

1. 개회식에서 요시하루 고모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전시장에 부스를 마련 'KIPES2006'을 홍보하고 있는 한국이앤엑스 김정조 상무(왼쪽)
3. 한국의 인쇄인들이 고모리 부스를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고모리 양면기 시연모습을 지켜보는 관람객들.

JGAS 2005 폐막

하이델베르크와 만로랜드 등 유럽 인쇄기기 업체들과 아그파 등도 넓은 부스를 마련, 홍보전을 펼쳤다. 이와함께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와 대한인쇄연구소가 공동으로 한국인쇄관을 마련, 한국의 인쇄문화를 알리는 비디오를 상영하고 팸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또 한국이앤엑스가 부스를 마련, 내년 고양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국제인쇄산업전(KIPES)

을 홍보했다.

JGAS 2005에는 한국에서 3백여명의 인쇄인들이 참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최대 규모의 전시부스를 마련한 고모리(국내 공급원: 일진PMS)는 이곳을 방문한 한국인 관람객들을 쓰쿠바 공장으로 초청, 오는 12월 초 완전 가동에 들어가는 공장을 공개했다. 쓰쿠바 공장은 고모리의 주력 공

장으로 5만여 평의 부지에 1만여평의 공장 건물로 건축됐다.

이곳에서는 4색기준 일일 2~3대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완벽한 항온항습 장치를 갖추고 있고 운전에 대응하는 양면 오프셋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다. 고모리는 1923년에 설립돼 24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50여개 국에 인쇄기를 수출하고 있다. <유정준국장>